

계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발전산업의 선진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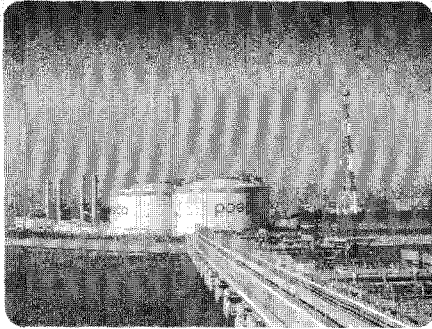
케이파워(주)(대표 박영덕)는 1997년 정부의 전력사업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대구전력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 SK와 BP의 합작을 거쳐 2004년 민간발전사업자로서는 최초로 LNG 직도입을 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한국전력과 PPA계약이 없는 최초 민간상업(Merchant) 발전사업자로서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케이파워는 국내 최초 민간상업발전사업자로서 사업초기에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험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초기 시장진입자로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케이파워의 창의적 도전은 계속되었다.

변동비반영시장(CBP, Cost Based Pool)인 국내전력시장에서 낮은 변동비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발전소 운영을 위해 LNG 직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3년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업 최초로 경쟁력 있는 LNG를 인도네시아 Tangguh로부터 직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직도입 LNG를 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양에 위치한 POSCO LNG 인수기지 바로 옆에 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 LNG 인수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고, 세계적 발전설비기업인 GE에 발전소 운영/정비 일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발전소 운영 경험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케이파워의 구성원들은 전력산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개척정신으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난관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냄으로써 2006년에는 안정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파워에서 시도한 혁신적 뉴 비즈니스 모델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PFI선정 'Asia-Pacific Power Deal of the year, 2004', 2007년 POWER GEN 선정 'Excellence in Technology Optimization', 'Independent Power Producer of the year, 2007' 등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했다.

경제적인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

전기라는 재화는 품질에 있어서 차별성은 없지만 그 전기 품질을 유지하고 전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다른 LNG 발전소는 배관망을 통하여 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아서 사용하는 반면, 케이파워는 국내 민간 최초로 자가소비용 LNG를 인도네시아 Tangguh 가스전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발전총비용 및 연료수입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자체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변동비 반영 전력경쟁시장(CBP)에 참여하는 민간 최초 상업발전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세계적 발전설비 제작,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 GE와 발전소 운전/정비에 대한 일괄 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소 운영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주주사인 SK/BP, POSCO와의 LNG 공동도입/터미널 공동이용, GE와의 운전/정비 아웃소싱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고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SK/BP의 기준 공동채택으로 건설기간 4백만 안전인시 달성, 무재해 2배수 달성('09.6) 등 세계적 수준의 선진 안전관리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KPOWER

그리고 주기기 분리입찰, 아웃도어 방식 건설, 대립건설의 Full turn-key(설계/구매/시공)계약 등 혁신적으로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여 경제적인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케이파워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국내 LNG화력 발전분야에서 독보적인 발전원가 경쟁력과 최고의 효율(최대부하 발전효율 51.5%, 전력거래소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인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

케이파워는 주주사인 SK 및 BP의 선진화된 안전환경보건경영 시스템과 운전을 담당하는 GE의 운영노하우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인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한 에너지인 LNG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석탄, 중유 등의 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에 비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법적기준치(50 ppm)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0ppm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2003년 9월 발전소 건설단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 2006년 5월까지 단 한 건의 상해 없이 무재해 400만 안전인시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무재해 2배수(960일)을 달성하였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파워는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성장을 통해 사회, 고객, 주주, 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최고의 고객 행복회사가 되고자 최초 민간상업발전사업자로서 발전경쟁시장에 참여하여 발전산업 선진화에 공헌하고, LNG 직도입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가경제에 공헌하며, 적극적인 지역지원사업 후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EA

취재/기획홍보처 홍보팀 양승수



C E O _ i n t e r v i e w

케이파워(주) 박영덕 대표이사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성장 동력 확보할 것”

Q.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A. 케이파워(주)는 인명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경영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HSSE(Health / Safety / Security / Environment)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람에 대한 무사고 (no accidents to people)’, ‘환경에 대한 무사고 (no accidents to the environment)’, ‘설비에 대한 무사고 (no accidents to our facilities)’ 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Q. 케이파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A. 추가적인 LNG 도입 추진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계약 물량 외 추가적으로 가용 LNG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계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LNG Source 다원화 및 시장기여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과 관련 케이파워의 적절한 투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시행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목표는.

A. 크게 세 가지로, 안정적 LNG 수급 및 전력공급을 통한 시장기여도 제고, 성장세 지속 및 양호한 수익성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체계적 지역지원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등에 힘쓸 생각이다.